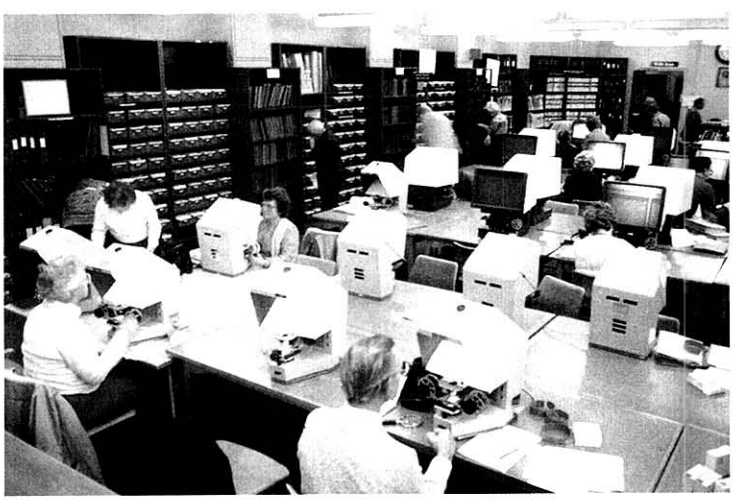
1. 민주화운동사료관 설립의 의의와 과제
2. 정부기록보존소
3. 국회기록보존소
4. 외국의 기록보존기관

민주화운동사료관 설립의 의의와 과제

김 유 경

아카이브, 사료관, 기록관: 그 유래



인간은 문명단계에 들어오면서, 특히 문자를 사용하는 역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문자로 고정하여 후대(後代)에 전하였고, 후대는 선대(先代)가 문자로 정착하여 물려준 기억과 경험, 즉 기록을 이용하면서 누적적으로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대개의 문화적 유산은 유형, 무형으로 이와 같이 인류가 축적한 경험의 산물로서 이는 무엇보다 수많은 문헌전승으로 형상화되었고 축적되었다. 많은 경우 인간이 자각적인 관심을 보존해온 대상물은 문화적, 예술적 목적과 욕구에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물의 보존과 관리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도서관', '박물관' 이라는 기관에서 담당해왔다.

이 자리에서 말하는 아카이브, 그리고 그 임시방편적 번역어에 상당하는 「사료관」, 「기록관」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런 기관이 담당하는 종류의 기억보존기능은 어떤 문화적, 예술적인 목적과 욕구에서 이루어지는 문자행위라기보다, 직접 실용적이며 행정적인 활동의 과정과 그 소산으로 생겨난 기록을 정리 · 보존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기관은 마찬가지로 문자로 정착된 지적생산물을 수집, 관리하는 도서관과 일견 비슷하면서도 구체적인 목적, 기능, 운영방식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라고 하는 이 낯선 서양말은 말은 아르케이온(Archeion)이라는 고대 희랍어, 아르키붐(Archivum)이라는 라틴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서양에서 고전고대의 문명이 몰락한 뒤에도, 이 말, 특히 그 라틴어 어형은 이 말로 함의되는 기능과 함께 후대에도 계승되어 현재에도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라틴어를 포함하여, 현대 서양어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주로 문서 형태의 것)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 을 의미한다. 이 말의 원천적 기원을 이루는 희랍어 Archeion은 원래 관청,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것이 라틴어 단계에서부터는 서양 여러 현대이형의 원형을 형성하면서 대략 오늘날과 같은 '기록보존기관' 이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여러 고도 문명권은 어디에서든 명칭이 다르고, 구성 및 운영방식이 다를 뿐, 이러한 기억과 경험을 보존하는 기능은 존재했었고, 현재까지 개성적인 발전을 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 중국이나 한국 사회에 특유한 방대하고, 체계적인 역사편찬의 전통은 이런 기능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으리라. 하여튼 인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획득한 기억과 경험을 보존하고,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필요에서 문자문화를 발전시켜 오면서, 동시에 이를 보존, 관리하는 역량과 기능도 같이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대개의 문명권에서 볼 수 있듯이 기록, 즉 문자능력은 자주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오랫동안 지배층에 의해 독점되어 왔었다. 고전고대를 거쳐 중세 및 근대초기의 절대주의 국가에 이르기까지 서양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한편 이 문화권, 특히 중세 이래의 유럽에서는 실제의 정치적 지배층인 전사귀족(戰士貴族)이 오랫동안 문자능력의 습득 자체를 불필요하게 여기고, 그 들 나름의 독특한 생활양식과 사생관(死生觀)에 의해 문자 및 기록문화의 기능을 성직자(聖職者)에게 떠넘겨, 이들이 문자능력, 나아가 지식을 독점하는 특수한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하여 서양에서 서기(書記), 지식인(知識人)을 의미하는 clericus, clerks는 중세 라틴어에서 원래 성직자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도 오랫동안 문자와 기록이 지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였음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지배기구의 유지와 행정의 필요, 사회 발전에 따른 식자능력(識字能力)도 확대와 함께, 방대한 양의 기록을 군주와 귀족 및 교회가 기록관을 설치하여 그들의 요구와 필요에 봉사하도록 정리 · 보존 · 이용해왔다.

> 아카이브(Archive)라고 하는
> 이 낯선 서양말은
> 아르케이온(Archeion)이라는 고대 희랍어,
> 아르키붐(Archivum)이라는 라틴어에
> 기원을 두고 있다.
>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
> (주로 문서 형태의 것)을 체계적으로
> 보존하는 장소 또는 기관' 을
> 의미한다.

기록보존의 기능과 역할은 프랑스 혁명(1789년)을 계기로 일대 변혁을 겪었다. 귀족지배체제를 타도하고, 지배신분의 특권을 폐지하여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한 시민사회를 형성한 프랑스의 혁명정부는 과거 왕정(王政)과 교회, 귀족이 독점하고 보존하던 정부의 기록을 비롯하여, 귀족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했던 각종의 봉건적 특권을 보장하는 기록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앞으로의 정부 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에 대해서도 시민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소위 근대적인 기록관리제도와 체제의 출발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정부의 행정조직의 하나로서 중앙과 지방에 기록보존제도를 정비하고, 이 기관에서 일하는 전문요원, 아키비스트(Archivist, Archiviste, Archivar)를 양성하는 국립교육기관, 고문서학교(Ecole des Chartes)를 1832년에 설립하였다. 말하자면 이 일련의 조치는 근대 민주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신적 기반시설의 정비사업이었다.

기록보존체제는 단순한 과거지사(過去之事)를 기념하는 목적을 넘어서, 당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는 정신적 기반시설의 하나가 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기록관, 사료관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주변의 유럽제국에 전파되어 19세기가 경과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정부의 기왕에 존재해왔던 왕공과 귀족, 특권적 지배세력의 독점물이었던 기왕의 기록보존체제를 서서히 국민대중이 공유하는 재산으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각급 기관에서 업무의 진행과정에서 작성되는 기록을 일정한 법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문요원이 정리 · 관리하는 기록관리 체제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고도화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제도의 정비는 그 기술적인 노하우(know-how)면에서는 이미 오랜 전통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세의 각급 영주들, 교회, 도시, 대학과 같은 단체(Corporation, Korperschaft), 나아가 근대초기의 절대주의 국가들이 기록을 정리 · 보존하던 세세한 기법은 많은 점에서 계승 · 발전되었다. 달라진 것은 이러한 제도의 운영이 시민사회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알 권리, 정확한 정보와 근거에 입각한 국가권력의 통제와 감시, 정부의 책임행정이 원칙으로서 인지(認知)되고 구현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기록보존체제의 정비와 운영은 근대시민사회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당연한 구성요소가 된 것이다. 정부와 정부의 운영을 책임지는 모든 공인은 기록으로서 그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입증해야 하고, 기록관에 보존되는 기록으로 현재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록관, 사료관의 기능목적과 역할: 한국사회의 현실과 관련하여

서양 문명권에서 발달한 기록보존체제의 유래와 그 근대적 정비과정을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은 자명해진다. 파란 곡절이 많았던 지난 100여 년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까지 전해지는 한국 전통사회의 방대한 역사편찬물, 공사(公私)의 각종 기록물을 보면, 우리네 전통사회에서도 나름대로 정교하고 체계적인 기록보존과 관리체제를 유지해 왔음이 짐작된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의 역사적 과

즉 기록보존체제는 단순한 과거지사(過去之事)를 기념하는 목적을 넘어서, 당해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담보하는 정신적 기반시설의 하나가 된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기록관, 사료관의 현재적 의미는 여기에 있다.

당연히 기록보존체제는 행정과 사회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지난 세월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은 이런 각도에서 보자면, 소수의 세력이 다수 사회구성원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국가와 사회의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관행에 대한 항의라고 할 수 있으리라. 프랑스 혁명과 함께 법 앞에서 평등한 '국민'이 등장하고, 이들에 봉사하는 국가체제는 자기 행위의 공명정대함을 늘 입증해야함이 근대(민주)국가의 원칙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 원칙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능이 기록보존체제였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의 아카이브, 기록보존체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기능을 재확인했다. 그 하나는 각 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원천적 자료의 보고라는 점이다(소위 정보적 가치). 또 다른 하나는 국가와 사회가 자기행위의 공명정대함을 입증하는 수단이라는 점이다(소위 증거적 가치).

오늘날 한국사회가 도달한 민주화 수준은 투명한 사회운영 — 정치,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 을 화두로 삼기에 이르렀다. 여러 선진 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되살려볼 때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 사회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아카이브, 기록보존체제를 정비하는 과업은 이에 가장 적합하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운동기념 사료관의 역할과 전망

일반적으로 사회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당해 사회의 경험을 지식으로 창출하여 미래를 전망하는 과업은 한 두 기록보존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제정한 「기록관리법」이 이미 이런 목표를 천명하고, 우리의 국가체제 전반에 걸친 기록관리의 기본방침을 밝혀 놓았기에 앞으로 그 귀결을 기대해본다. 그러나 정부가 정리 · 보존하고자 하는 기억과 경험의 영역이상으로 오늘날의 사회영역은 복잡하고 방대하다. 그러기에 이미 선진 제 국에서는 국가 및 정부와 무관하게 무수한 사적 개인, 단

체, 기업 등등이 나름대로의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소장물의 가치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유명한 작가들의 육필원고를 수집, 정리해놓은 문학아카이브, 기업의 회계장부, 사업기안, 제품특허기록 등등을 보존해온 기업아카이브, 심지어 영화, 연극, 음악 아카이브 등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설립비용과 사업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민주발전 지원 및 기여 사업을 2002년부터 본격 수행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 사료관은 통상적인 정부기관의 기록보존체제와 다른 특수기록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내세울 공헌도 이제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건국 무렵 세계최빈국의 하나였던 상태에서 벗어난 성취, 그리고 물질적 성취의 음지에 가려진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치운영에서 서서히 벗어난 성취... 지각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지난 세월에 이루어낸 이 두 가지 성취를 자족하면서 여전히 완성의 도정에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화운동 사료관은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세월에 우리의 사회구성원이 민주화를 위해서 바쳐온 노력의 흔적과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는 과업을 자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료관리부」가 직접 수집하거나 관련당사자, 유족 및 독지가들의 기증을 받아 모은 각종 문서자료와 실물자료도 이미 매우 엄청난 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왜 이런 사업을 해야하는지는 기록보존체제의 일반적 목적와 역할을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 사회가 이룩한 성취와 그 성취에 도달하기 위해 치렀던 고통과 갈등의 경험 끝에 국민적 합의를 본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을 생각할 때,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화운동사료관이 수집하고 소장할 자료는 우리 국민의 존엄한 성취를 입증하는 물적 증거로서 우선 소중한 가치가 있겠지만, 이 존엄한 유산을 되새겨 우리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지식와 정보의 원천으로서도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민주화운동사료관이 수집하고 소장할 자료는 존엄한 유산을 되새겨 우리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지식과 정보의 원천으로 무수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도달한 민주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더욱 진보할 것이라는 신념에서 이 사료관이 수집할 자료는 하한연도가 설정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도 기대한다. '사회의 민주화' 가 도달하는 최종 귀착점이라는 것은 인간사회가 존재하는 한 그리 쉽사리 설정될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네 국가와 사회운영의 투명성이 우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관철되기에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판단에서이다.

김유경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독일과 대학교(박사)
서양중세사 전공